기술이 곧 경쟁력이다!

국내 화학산업계가 최근 호경기를 맞이해 적극적인 신증설 투자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과거 3년여동안의 불황을 헤치고 뜻하지않은 호황을 맞았으니 사업을 재검토하고 보완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 적극적인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투자는 장려되어야 하고 여력이 있는 한도내에서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부문을, 어떤 품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의사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러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으나 산업 투자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리고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품목이 최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성이 크고, 더군다나 재벌기업들의 무지막지한 그리고 힘자랑식의 경쟁적 투자가 다반사로 발생, 자본과 산업설비의 관리가 어려우며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보다도 앞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술개발 투자이다.
현대 산업사회 아니 미래의 산업은 과거와 같은 범용제품의 대량 생산에 따른 생산의 효율성보다는 특화된 제품의 소량다품종시대가 예견되고 있으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산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겠지만 오늘날은 기술발전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고 전혀 예측하지못한 기술이 나날이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가공응용기술에만 의존한 나머지 기초기술 개발을 소홀히한다면 기술후진국의 불명예를 면할 길이 없고 국가경쟁력 또한 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서둘러야 하고 설비투자에 앞서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강화해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화학산업은 기초기술이 중요하고 선진국들의 기술무역 장벽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까마득한가 우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의약 및 농약기업들이 현실에 대처하지 못하고 허둥대다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기술개발 의식이 얼마나 안이한가를 증명해주고 있다.
석유화학도 마찬가지로 합성수지 등의 수출이 늘어 호황기에 접어든 감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만사가 다 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동남아 등에서 형성되는 석유화학제품가격을 보더라도 한국산이 800달러이면 일본산은 1000달러안팎에 거래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것이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기술이 곧 경쟁력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공통적인 인식을 가질 때 우리의 산업이나 국가경쟁력이 강해진다는 점 강조해둔다.

<화학저널 1994/11/1>